

발행일/1992년 4월 5일
 발행인/한명숙
 발행처/한국여성민우회
 120-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0-6
 전화/(02) 313-1060
 팩시/392-7844
 값/700원

1992

함께 가는 여성

4

통권 56호



- | | |
|--|---|
| 2 이달의 편지/
아지랑이 건히면 한송이 목련이예요 | 11 참가기/민우회 사무직 회원 수련회
“우리 함께 해방의 하늘을 열어젖히세” |
| 3 알고계십니까/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태평양 창고는 60°C... ‘우리밀’ 시급하다 | 12-13 지역협의회 소식/
새 봄, 새싹을 피웁시다 |
| 4-7 특집/14대 총선을 짚어본다
이젠 우리 몫 따내고 ‘그릇됨’ 바로 잡을 때... | 14 생활협동사업부 소식/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 |
| 8-9 모니터/세 TV 방송사 ‘14대 총선 보도
‘여당’과 짝자꿍-투표를 낫춘 바보상자 | 15 공급품목 |
| 10 살며생각하며/
식물의 광합성 사랑-삶의 지혜입니다 | 16 게시판
제6기 민우여성학교가 열립니다
정신대, 유엔 인권위원회에 호소
‘어머니 품물교실’이 열립니다 |



당리당락에 휩쓸렸던 대다수 여성정치인들과는 달리 깨끗하고 소신있게 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정치계 불신을 불식시켜 주신 박영숙 의원과 한명숙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였다.

아젠 우리 못 따내고 '그릇됨' 바로 잡을 때...

14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와 우리 여성들에게 던진 의미는 무엇인가? 또 올 한해 계속될 선거국면에서 우리 여성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함께가는 여성'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성계를 대변해온 박영숙 민주당 최고위원과 한명숙 회장의 면담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한 :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여성운동 측면에서도 평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 선출이라든가 단순한 의미 이상을 지닌 선거였지요. 3당통합으로 거대여당이 된 집권당은 기초의회와 광역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후 여러가지 반민주적인 행태들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는 3당통합, 단체장선거 연기, 내각제 개헌, 6공화국의 여러 실정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묻는 선거였습니다.

여당은 선거에서 뿌려질 막대한 돈이 경제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유로 단체장선거 연기를 주장했지만 공명선거가 이루어진다면 5,000억 정도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또한 막대한 돈을 뺏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쪽은 결국 여당

이고 보면, 단체장선거의 연기는 대통령선거를 관권선거로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결과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한 셈이지요. 우리 유권자들은 정치현실보다 앞서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크게 부족합니다. 야당이 반민주규탄과 함께 남녀평등의 인식도 같이 갖추고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여성문제에 관한 한 야당도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의원 20% 쿼터제 등의 여성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하나라도 더 의석을 확보해야 하고, 또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앞에서 결국 이중성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구에서도 여성의석 배분이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여성의 의회진출은 10대 국회 이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0대 국회에선 3.5%이던 여성의원이 11대에는 3.3%, 12대에는 2.9%(8명), 13대에는 2.0%(6명)로 줄다가 이번 14대에는 1%(3명)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운동이 실제로 여성들에 의해 치루어졌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자부하는데 정치권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제 여성운동은 우리 정부자체의 민주화와 여성의 인간회복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얻어내는 기술을 창출해야 합니다.

한 : 이번 총선결과를 보더라도 유권자의 정치의식은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갖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무관심하다는 언론의 선전은 오히려 의도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정치권은 여성들이 압력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이것은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더욱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박 : 여성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유권자의 역할은 해냈으나 여성문제를 짚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때마다 정치현실보다 앞서나가는 국민들의 현명함을 느낍니다. 3당통합, 단체장선거 연기, 내각제 개헌 및 6공화국의 여러 실정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실에서 ‘여소야대’로 국민들은 심판을 한 겁니다.”

다. 정치권은 무엇보다도 투표로 행하는 응징을 두려워하는데 여성들이 반여성적 정책에 응징을 못해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선거는 3당합당 응징이라는 좀 더 커다란 과제에 가려 여성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여성들이 아직은 여성의 힘을 과시하는 기술이 미숙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후보 공천과정에서도 여성의 요구를 제때에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성이 여성만의 단단한 조직을 갖추려면 아직도 무척 요원한 현실이고 또 정치권의 남성들 자체가 평등의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들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적절한 시기에 여론화 작업을 해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점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14대 의회에 진출한 3명의 여성중에 여당의원이 2명이고 보면 여성의 이번 의회 진출은 질적으로도 저하된 셈입니다.

정치는 삶의 조건을 창출하는 일 여성적 특성으로 개혁할 면 많다.

한 : 4년 동안 여성을 위한 법개정 등에 헌신적인 노력을 쏟으신 선생님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셨던 보람이나 포부 혹은 한계 등에 대해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 : 저는 여성운동을 하면서도 인구의 절반이며 1,400만 유권자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성의 문제는 여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였어요. 물론 여성운동에 호응해주는 남성의원들도 있긴 하지만 여성의 세세한 문제는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정치가 권력다툼의 놀이가 아니라 진실로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라 우리 나라의 정치현실은 여성의 특성으로 개혁하여야 할 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의 정치풍토를 개

혁하고 정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제가 의회에 들어가 보니 정치인들이란 항상 인기품목만을 선택하고 소수자, 억눌린 자의 아픔에는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어요. 다수의 유권자들을 의식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요. 이러한 일은 당연히 여성의 몫이지요.

그리고 13대 국회는 다른 정치적인 면에서는 비난을 면치 못하겠으나 여성운동 면에서만은 많은 일을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고 타아관련법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입법 결과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예산의 지불근거는 마련된 셈이에요.

'89년에 제가 독일에 가서 사회당 간부와 만났을 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야당이 법개정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쥘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야당이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밖의 이익단체들과 연계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이 점에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물론 초기는 여성운동 단체에서도 정치권에 대해 냉소적이고

권력다툼의 놀이가 아니라
정치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여성의 특성으로
개혁하여야 할 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치풍토를
개혁하고 정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세지향이 아닌
진실로 뜻있는
민주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권도 여론 따위엔 상관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지만 여성단체들이 정당에 무엇을 요구하여 성과를 얻었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법개정 등의 성과를 얻은 후에 여성단체의 평가를 보면 정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법개정의 성과는 여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라 해도 법개정은 어차피 정당을 통해야만 가능한 일이니만큼 정당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합니다.

성과는 여성전체 힘일지라도 다리역할 정당도 올바른 평가 필요

여성단체 뿐 아니라 다른 여론형성집단들의 잘못은 여·야에 대한 양비론입니다. 야당이 잘못된 일은 잘못이라고 비난하더라도 잘한 일은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의 차별성을 키워주어야 정당이 정책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아마도 가족법개정 당시부터 이런 잘못을 인식하기 시작한 듯 합니다. 차별성의 문제를 각 정당에게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실질적 소득을 얻어 냅니다.

예를 들어 가족법개정 당시 평민당의



“깨끗하고 소신있게 국정에 임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은 우리 여성들에게 깊은 신뢰와 정치계 불신을 불식시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여성운동 현실에 맞는 정치세력화의 방안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한명숙



“부끄럽습니다. 정치세력화라면 합법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지역기반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초 및 광역, 다음 국회 등에 계속 도전해 나가야죠. 민우회의 지역중심운동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해요. 저는 원외에 있는 편리함을 이용하여 여성과 직능대표의 의회참여 당위성을 좀 더 강력히 주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숙

다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 : 그렇게 평가해주니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제 깨끗하고 담담하게 제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기는 셈이군요.

한 :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자꾸 부상되고 있는데 한편 여성운동단체는 숫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무척 미약한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성운동이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박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정치기구를 띄워 기초, 광역, 다음 국회 등에 도전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이번에 민중당이 선거에서 얻은 결과가 보여주듯이 아직은 진보적인 세력이 보수정당 어딘가를 선택하여 커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지금 참으로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후보를 키워내어 정당에 파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정당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집단이 정당을 택해야 합니다. 또 정당도 이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정당도 당락에 따르고 돈많은 사람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돈없는 사람이 정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게 당분간 힘들다해도 적어도 여성들이 몇 석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혜택이 아닙니다. 정당내의 여성집단도 자칫 이것을 시혜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은 여성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특별법이라든가 고용안전장치법 등을 제안한 일은 무척 잘한 일입니다. 여당에서도 재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 해봐야 껌데기만 할터이니 이우정 선생님을 중심으로 여성계가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가야 하리라고 봐요. 또 이번에 진보적인 남성의원들이 원내에 많이 진출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선 안돼요. 자꾸 가동시켜야만 합니다.

합법공간 충분히 활용해야 민우회, 지역중심운동 바람직

한 : 지금 민우회는 생활협동운동을 매개로 하는 대중여성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여성들은 사무직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주부들은 지역협의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민우회 회원인 홍미영씨가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지역에서 주부들이 자신의 생활터전과 직결된 운동을 펴나가면 앞으로 지방자치제 선거 등에서 정치세력화에 주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민우회에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구체적인 요구는 없으신지요?

박 :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이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상황에서 일해 왔으므로 반민주적인 저쪽에서 무엇을 받아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라기보다 운동의 대중적 성격과 아울러 합법공간의

확대 및 활용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여성단체가 요구를 했을 때 정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원내에서도 싸울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머니를 털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운동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운동단체도 정부지원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그 기금들이 항상 관변단체로만 흘러가지 않습니까?

민우회가 지역을 중심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여성단체가 실패한 부분이 바로 지역기반입니다. 정치세력화 기구는 여성단체연합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공동과제로 하고 민우회는 지역에 뿌리내리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여성의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지역을 선정하여 몇명의 지방자치제 후보들을 길러냅시다. 여성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여성적 시각을 지닌 진보적 남성후보와 협력하여 여성정치세력화의 발판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 : 그렇습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구호처럼 내거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 구체화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이번에 진보적인 젊은 남성의원들이 배출되었으니 야당내 민주화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랜시간 유익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 유소림/홍보부장) *